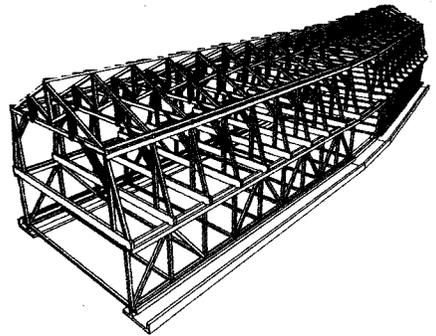


# 평당 40만엔 대로 음악홀까지 실현



남쪽전경. 지붕은 아루스타 강판 t=0.4평준(平葺) 입구(立鉤) 이음. 북쪽에 느티나무가 있고 낙엽량이 많기 때문에 홈통을 설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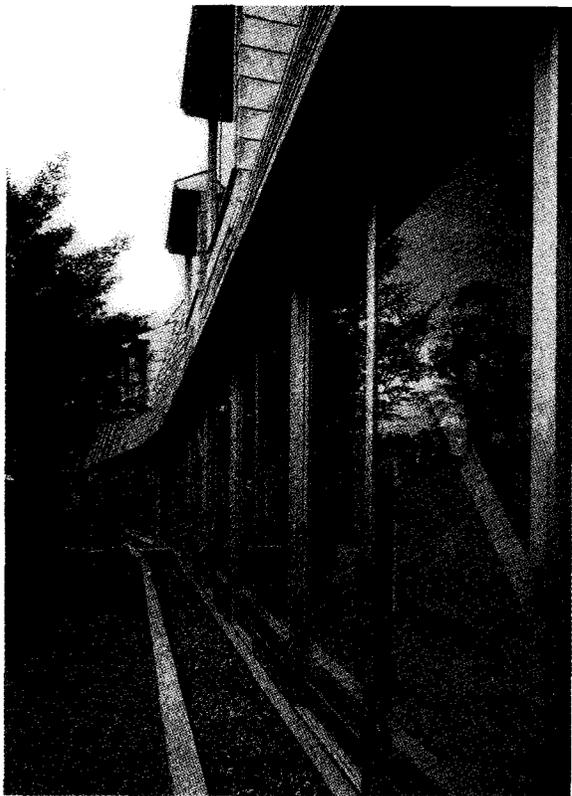
구조개념도. 1층의 기둥외측에 커튼 월 모양의 개구부와 외벽이 있다.

이비인후과의 클리닉 바로 뒤에 있는 음악홀. 바닥은 89.23㎡, 의자 사용으로 최대 약 100명을 수용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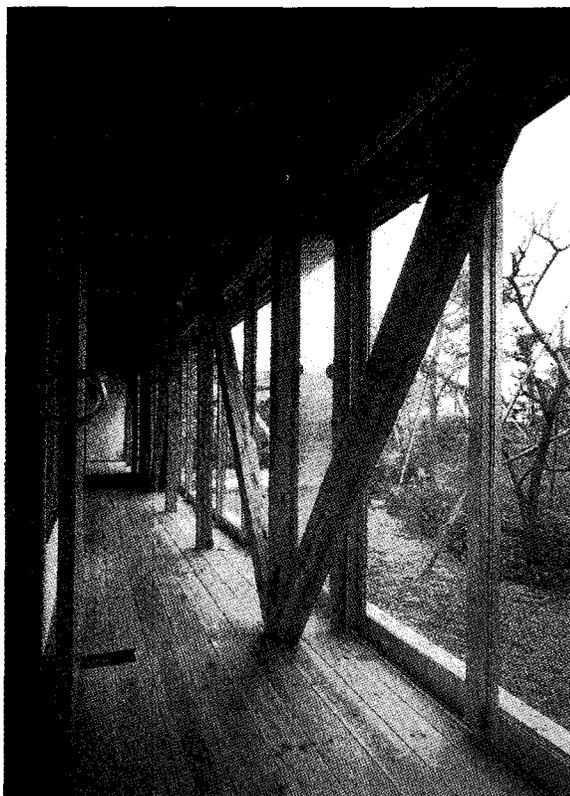


거실에서 웰 부분을 올려본 모습. 2층 천정은 두께 15mm의 미국 삼나무 화장지붕 널, 벽은 12.5mm두께의 석고보드에 GAEP도장. 1층 천정도 두께 15mm의 미국삼나무 화장판, 그 밑에 120×350의 보를 1818mm피치로 가설하고 있다.





지붕에 흠통을 설치하지 않고 기초로 낙수물받이를 겸하고 있다. 기둥과 틀에 따라 새시와 새시 사이에 '벽'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조체를 새시에서 분리하였다.



1층의 넓은 툇마루. "집성재를 비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조체를 새시의 내측에 설치한 이유의 하나"라고 宮城씨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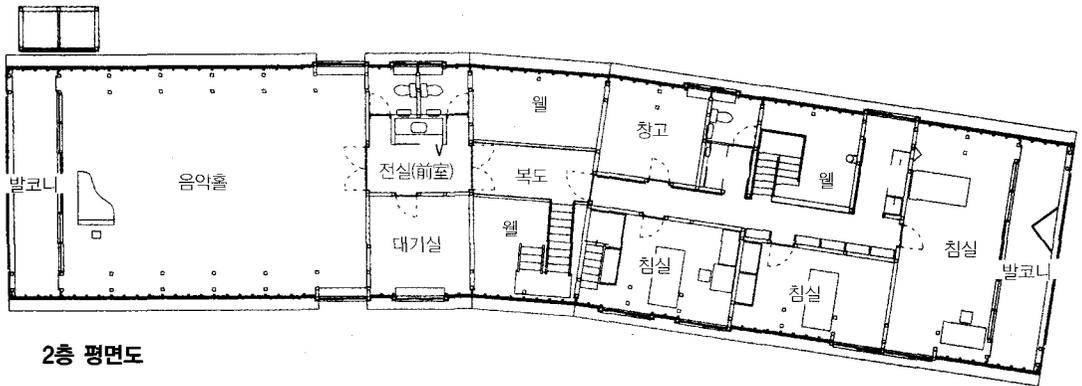
**개**인의 집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홀은 음악대학의 성악과를 나온 건축주의 딸이 콘서트를 개최할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졌다. 실은 이 여성은 생후에 곧 소아마비를 앓아 지금도 다리 등에 장애가 남아 있다. 자택을 개축할 때 딸의 사회 활동의 자리로 건축주가 요망한 것이 발표회에 적합한 넓이를 가지는 홀이었다. 같은 규모의 홀은 이 지역에는 없고 이 도시의 음악의 거점으로 만들고 싶다는 기도도 있다.

이렇게 해서 설계는 음악홀이 있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였으나 비용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결국 견적과 확인신청까지 마친 설계안은 모양과 면적 등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설계자인 嶋田勝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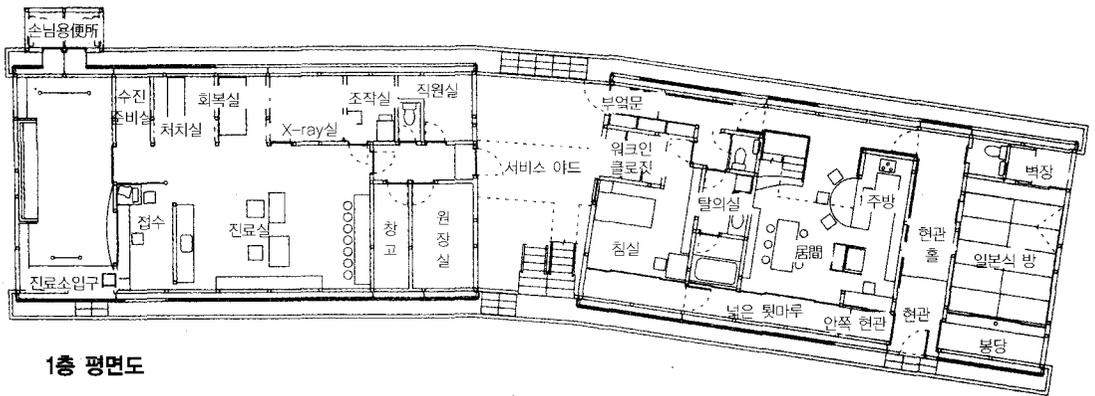
씨와 파트너인 宮城陸씨는 말한다. 최종적으로 평당 약 45만엔 이라는 '저비용'으로 결정되었다.

嶋田씨는 "우선 지역의 목공, 지역의 목재로 착수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사를 청부한 지역 공무점으로부터 '지역목재보다 수입목재가 싸다'고 제안되어 기둥·보는 레드우드(유럽적송)의 집성재를 사용하였다.

두 사람이 다음으로 생각한 것은 동일단면, 동일규격을 반복하는 구조로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2층 바닥을 지지하는 보의 단면은 120×350mm, 길이가 8181mm로 이 부재를 1818mm피치로 가설하였다. 2층의 공간은 105×105mm의 프린시펄 레프터빔(principal rafter beam)과 105×150mm의 타이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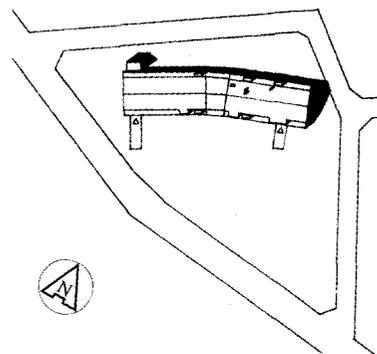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빔(tie beam), 105×105mm의 기둥 등으로 지지되는 큰 지붕이 덮이고 1층 외주부에는 105×105mm의 기둥이 1818mm피치로 세워진다. 이들 주요구조의 내측에 기둥과 벽이 1818×909mm를 기본 모듈로 설치되어 있다.

또 보 사이의 방향(梁間方向)의 기둥을 벽 내에 넣는 한편 보 길이 방향(桁行方向)은 노출시켰다. 1층의 넓은 뒹마루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브레이스를 넣어 수평력을 부담시키면서 의장상의 악센트로 하였다. 프레임(架構)은 단순하지만 겉보기와 디테일의 연구로 변화가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건축주로서는 당장의 고민이 병설하는 이비인후과(耳鼻咽喉科)의 환자가 이따금 의료시설로 보이지 않은 외관에 현혹되어 잘못 알고 돌아가 버리는 일



배치도(1/1,500)

이다. 주택으로는 “조명이 어둡다가 하는 난점은 있으나 생활하는데 느낌은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건물의 준공피로연을 겸한 음악회에는 백 여명의 인사가 모였다. <外誌에서> 